

취업, 꿈을 이루는 '디딤돌' 되다! 고양희망 청년인턴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 청년 실업자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양희망 청년인턴' 일자리는, 지난해 이런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숨 쉴 통로를 열어 주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키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글. 사진. 정현숙(고양소식 편집위원)



영상홍보팀 청년인턴 장현호(좌), 이지연(우)

라이브방송 진행을 통한 현장경험

오후 4시에 시작될 고양시 유튜브 '이범학의 라이브 음악방송'을 앞두고 청년 인턴들은 2시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피커의 음량조절부터 미리 선곡해 둔 LP판을 고르는 일 등 생방송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미리 점검해두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이브방송 '진행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FD 역할인 셈이다.

청년인턴 장현호, 이지연 씨는 이런 라이브방송 진행업무가 처음이지만, 평소 유튜브 스트리밍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터라 이 일자리가 너무 재미있고, 생방송 보조업무라 긴장감과 성취감도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청년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유튜브 스트리밍 생방송 진행업무를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장현호 씨는 평소 유튜브 편집을 조금씩 배워왔는데, 이 일이 끝나면 유튜브 편집과 스트리밍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지연 씨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마케팅 일을 하고 싶었는데 더 확신을 얻게 되어 보람찬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의 꿈

어르신들에게 줄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식당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만들어진 음식을 담은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인턴들이었다.

청년인턴들은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포장한 뒤, 인근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는 걸어가서 배달해주거나, 먼 곳은 직접 차를 운전해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주는 일을 담당했다.

청년인턴 김익현 씨는 잠시 일을 쉬던 중 이번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로 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올 수 없는 노인들이 도시락을 전달 해주면 너무도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에 이 일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 있



청년인턴의 도시락 배달

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외롭고 힘든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이 일을 하게 된 청년인턴 성하은 씨는 도시락에 담은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너무 뜻깊은 일자리였다며 나중에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제작

조용한 다른 관공서 사무실과 다르게 생동감과 활기가 넘쳤다.

'고양희망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고양시 관광지를 잘 홍보하고 영상물을 멋지게 제작할지 고민하며 콘텐츠 개발하는 일에 서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모습이었다. 고양시 관광과에는 '고양희망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으로 관광개발팀, 관광정책팀 모두 25명이 함께 일했다.

이들 청년들은 지난 4월부터 고양시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영상물을 제작하고 멋진 홍보글을 작성해 고양TV에 영상물을 만들어 보여주었고, 고양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통해 고양시 홍보대사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일한 청년인턴 정지영 씨는 여행비로거로 일하다 참여하게 됐는데, 혼자 일한 것보다 관광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카메라 앵글에 담으며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인턴 이지현 씨는 다른 선배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되어 청년인턴으로 지원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에 보탬이 되는 업무 지원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곳. 고양시 각 접중센터, 보건소,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에 청년인턴들의 수고와 땀이 곳곳에 배어있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 청년인턴들이 함께했다.

고양희망 청년인턴은 지난 2021년 보건·방역, 복지 분야를 비롯해 도시재생, 환경, 행정보조 분야에서 모두 200여 명의 청년들이 인턴으로 일하며 취업의 꿈을 키우게 해주었다. 일부 청년 중에는 청년인턴으로 일하다 취업의 문이 열린 청년도 적지 않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청년인턴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80% 이상이 만족하였다는 평가를 반영해 올해 2022년에는 청년들이 실무경험을 쌓아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양청년희망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40여 개 사업에서 149명을 선발하여 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문촌복지기관의 청년인턴



관광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들



접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들

고양시 청년 희망 일자리사업

문의 일자리정책과 031-8075-3747